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2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1 일

인사말

아름다운 학연을 위하여

오 성 환(경제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학부소식지를 통해 선후배 동문들께 인사 드리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학교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은 겨울빛이 역력합니다. 이제 눈만 오면 영락없는 겨울풍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건승 하시기를 빕니다.

가끔 연(緣)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세상사가 혼탁하여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예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진 모든 병폐의 원인인양 치부되고 있습니다. 하여 이들 말을 입에 올릴라치면 의혹의 눈길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같은 연(緣)을 이용하여 뭔가 이득을 보고 나쁜 것은 덮어 버리려 하는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연(緣)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물론 불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연(緣)이란 끊어야 할 족쇄일 뿐입니다. 그러나 속세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연(緣)이 없다면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연줄이 끊어져 허공으로 사라져 가는 연(鳶)의 심정일 것입니다. 생떽쥐베리는 우편야간 비행시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도, 사막에 추락한 후 물 한모금 못 먹으면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인간의 연(緣)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연(緣)이란 우리들 하나하나를 이어주고 지탱하여 주는 끈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연(緣)으로 서로 얽켜 살기 마련입니다. 하많은 연(緣)중에서 그 으뜸은 혈연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연(緣)이 없었다면 우리는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피로 맺어진 연(緣)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혹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식들을 통해 이 연(緣)은 지속됩니다. 참으로 질긴 연(緣)이지요.

순위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앞서 말한 세 연(緣)중 막내자리는 지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거나 자라난 땅의 연(緣)이란 어린탓에 선택의 여지가 좁다는 점에서 혈연과 비슷하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서 혈연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선택과 능력이 함께하는 학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음 저 깊은 한켠에 자리하는 어릴 적 기억과 향수를 머금고 있는 지연은 어찌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혈연과 무정한 선택이 따르는 학연의 가운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련한 맛은 있으되 구체성이 없습니다. 이는 중추가절이나 송구영신의 절기에 고향에 부모나 혈육이 없는 경우 우리가 과연 고향행을 감행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자명해 집니다. 혈연이 없는 지연이란 붕어가 없는 붕어빵 수준이 아닐까요.

따라서 혈연 다음은 학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가 거의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후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진 자신의 선택들의 결과물입니다. 즉 혈연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골육을 이고 살 것을 요구한다면 학연은 철저히 자신이 일궈내고 싶으면 마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선택의 과정속에서 우리가 성장함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학연은 자신의 성장과정을 증명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과거사를 응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몇몇 마음에 안들던 친구도 있었지만 결국은 친하고 마음에 와닿는 친구가 되는 것도 이들을 보면 자신의 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찬란했던 젊음의 시기를 함께 보낸 그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비슷한 두뇌와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각자 무엇을 해도, '어허, 그 친구 그 일을 해? 잘할거야' 하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의 연(緣)을 어떻게 꽃을 피워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모든 잡다함을 추스려 핀다 합니다. 그 모든 잡다함을 다스리는 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도 한켠에서 굳건히 듭니다. 혈연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의 모든 과거사와 역량이 결집된 학연을 항용 상기하셔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 개개

인의 혈연과 지연이 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경제학과(부) 학생시절을 한 번 생각해 볼때도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인연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2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1 일

교수동정

1. 인사

김완진	교수로 승진	1999. 10. 1
홍기현	교수로 승진	1999. 10. 1
전영섭	교수로 승진	1999. 10. 1
정영일	개교 53주년기념 30년 근속공로 표창	1999. 10. 15
이천표	개교 53주년기념 20년 근속공로 표창	1999. 10. 15
정운찬	개교 53주년기념 20년 근속공로 표창	1999. 10. 15

2. 외국방문

김인준	미국, 하버드대 파견	1999. 9. 1 – 2000. 8. 31
양동휴	미국, 캔자스대 파견	1999. 9. 1 – 2000. 1. 31
박준용	미국, 예일대 파견	1999. 9. 1 – 2000. 1. 31
이창용	미국, 로체스터대 파견	1999. 9. 1 – 2000. 8. 31

학부행사

1. 교무
   1) 99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 학사 26명
      최우등졸업포상자 : 신용석, 홍승현
      우등졸업포상자 : 전성재
      ▣ 석사 11명
      ▣ 박사 2명 (김태승, 이경미)
   2) 2000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특차모집 실시
      ▣ 필답고사(외국어 시험) : 99. 8. 21(토)
      면접 및 구술고사 : 99. 8. 28(토)
   3) 고교장 추천입학 전형
      ▣ 지원자 144명, 선발인원 20명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1999.12.18(토)

2. 학생
   1) 하계 농촌 봉사활동
      ▣ 1999. 6.29 ~ 7. 9
      ▣ 참가인원 : A반 27명, B반 34명, C반 30명
      ▣ 이준구 학생 부학부장 현지 방문 (7. 6), 조교 3인 방문 (7. 5 ~ 7. 6)
   2) 우수논문상 시상식
      ▣ 9.30 (목) 10:00, 사회대 회의실
      ▣ 수상자 : 정진호(한국의 직장이동에 관한 연구)
      김태승(육상화물운송업 비용특성과 탈규제의 경제적 효과)
      ▣ 참석교수 : 류근관
   3) 우등장학증서 수여식 : 1999. 9. 7. 교수회관
      ▣ 수혜자 : 윤경수 외 10명
      ▣ 이천표 학부장 참석

3. 행사
   1) SJE-KIF 국제 심포지엄
      ▣ 1999.8.27(금)오전10시, LG 경영관 116호
      ▣ 주제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2) 두뇌한국21 사업신청서 제출
      ▣ 1999.11.8(월)
      ▣ 교육·연구단명 : 한국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학교육·연구단

3) 제5회 동문초청 강연회
▣ 연사 : 박용성 (상대59회, 현 OB맥주 회장)
▣ 제목 : 기업구조조정
▣ 교수 및 학생 130여명 참석
▣ 일시 : 1999. 11.4(목) 16:00
▣ 장소 : 경영대 국제회의실
4) 제2회 김태성 교수 기념 강좌
▣ 연사 : Ronald W. Jones 교수 (로체스터 대학)
▣ 제목 : 생산의 세계화와 분절화
▣ 일시 : 1999. 11.15(월) 15:00
▣ 장소 : 서울대 박물관 강당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2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1 일

교수기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생의 진로 : 20년 전과 오늘의 비교

류근관 (경제학부 교수)

나는 1979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제학을 공부한 이른바 79학번이다. 지금은 같은 곳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경제통계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98학번이다. 나와는 대략 20년의 나이 차이를 보인다.

내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대학원 진학이 아주 유행할 때였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학하기도 했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진학하기도 했고,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켜주는 이른바 석사장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진학하기도 했다.

문득 지금의 경제학부생들은 장래의 진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졌다. 들리는 말로는 고시공부를 하여 장차 공무원이나 법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도 하고 금융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고도 한다.

그 궁금증이 자라서 예전과 지금은 경제학부생의 진로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졌다. 자료의 제약상 일단 79학번 경제학과 졸업생 90여명 가운데 현재 직업이 확인된 86명의 직업분포와, 20년이 지난 지금 경제학부 재학생의 장래 희망직종을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현재의 재학생은 내가 강의하는 경제통계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한 경제학부생 91명이다.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생의 직업분포 : 20년 전과 오늘 (단위:%)

희망직종 어제:오늘	교수 공무원 제2금융권 은행 일반기업체 기타	합계
70학번(현직)	27 7 21 10 12 23	100(n=86)
현재학생(희망)	13 29 17 10 9 22	100(n=91)

위의 표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79학번의 경우 현직의 분포이나 재학생의 경우 희망직업의 분포이기 때문에 둘을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를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교수희망자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그간 경제학부의 정원이 당시의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의 정원을 합친 130-40명 규모에서 현재 220명 규모로 늘은 반면 국내의 경제학 교수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둘째, 공무원 지망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학생의 경우 실현치가 아니라 희망치이기 때문에 29%가 전원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비율은 20년 전에 비하여 아주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20년전에 비하여 증가한 애국심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제 2금융권, 은행, 일반기업체 등에서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재학생의 비율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의 경제학부생은 제 2금융권의 경우 펀드매니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은행이라고 할지라도 외국계 은행을 선호하고 있다. 기타의 경우 사법고시를 준비하여 법조인이 되려는 재학생의 비율이 14%나 되고 있다. 경제학 전공자가 법조계에서 일하는 것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14%는 아무래도 너무 높아 보인다. 참고로 79학번 경제학과 졸업생의 경우 현재 두 명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재학생의 경우 고시와 관련된 통계를 좀 더 들여다보면, 희망직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행정고시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중인 재학생의 비율이 35%나 되고 사법고시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중인 재학생의 비율이 14%이고 그밖에 공인회계사등 기타의 자격시험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중인 재학생의 비율이 17%나 되어 이를 모두 합치면 행시·사시·공인회계사 등 고시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중인 재학생의 비율이 66%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2%는 실제로 현재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고시 준비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재학생에 대해서만 조사한 그 밖의 통계를 보면, 교수진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거나 아주 만족해하는 비율이 65%로, 불만족스러워 하는 1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 다만 경제학부 자체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면 그 비율이 36%대 24%로서 만족해하는 비율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불만족해 하는 비율은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는 경제학부가 현재 정체성의 면에서 다른 학과, 예컨대 경영학과나 법학과에 비하여 뒤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독자적인 건물이 없고, 동창회와의 유대관계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학부가 어느덧 "족보 없는" 사회대의 한 구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혹평까지 들을 수 있었다.

가정형편을 보면, 월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재학생의 비율이 46%에 이르러 장학금 확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비 조달방법을 보면 부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67%에 이르고 있어, 많은 경우 부모가 자식의 학비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장학금 수혜폭이 조금씩 증가했음에도, 장학금 혜택을 부분적으로라도 입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고작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학비를 조달하거나 보조하는 학생의 비율은 12%이고, 이 가운데 3%는 전적으로 본인의 아르바이트만으로 학비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영남이 각각 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호남 11%, 경기도 8%, 충청도 5% 순이었다.

앞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79학번의 오늘 모습과 현 재학생의 장래 희망을 비교해 보았고 아울러 현 재학생의 현재 모습을 좀 더 들여다 보았다. 앞으로 동문 여러분께서 다른 학번의 모습을 보내주셔도 좋겠고 현재의 재학생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말씀을 보내주셔도 좋겠다. 이번에 제2호를 내게 된 경제학부 소식지를 통해 동문 여러분과 재학생, 교수, 그리고 학부가 서로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동문기고

金剛山 遊覽記 홍용찬(경제 64)

상대총동창회부회장
장학재단 이사,
우성해운 사장
경제 96 홍민영 父

無說殿
“여기 들어오는 자, 모름지기 입을 다물 지어다.”

국민학교 수학여행을 비롯하여 佛國寺를 발이 부르트도록 들락거렸어도 정작 대웅전 뒤편에 있는 이 法堂의 “說”은 깨달을 “열”로 읽힌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만날 때마다 새로움을 깨우쳐 주며 잔잔한 감흥을 불러 돋구어 法說의 의미를 새겨보는 기쁨을 자아내게 하는 慶州의 넉넉함.

위대한 문화적 문물과 빼어난 자연은 그 아름다움을 제각각 뽐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경쟁관계가 아닌, 무릇 성키고 어우러져서 우리강산의 아름다움을 고조시키고 熱唱케 하는 것이렷다.
까마득한 옛날 어릴적의 어슴프레한 기억을 되돌리며 마치 求道者인양 그때 피란 왔던 그 길을 거슬러 고향 길에 오른다.

금강산, 듣기만 하여도 끓는 피가 용솟음치는 나 살던 곳 우리 금강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다시는 못 볼 것만 같던 사랑하는 여인을, 아니 내 식구를 만나러 길을 나선다.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기다리다가 잠 못 이루고 지쳐버린, 세월 따라 켜켜이 쌓였던 목놓아 울고팠던 서러움을 언젠가 고향 가까운 화진포 바다 파도소리에 묻어 버렸었건만 이제 그 恨을 달래려고, 아니 그보다는 더 크낙한 바램과 설레임에 부풀어 다가올 새날을 채비하는 찢어졌던 가슴들을 추스려 싣고 차갑고 캄캄한 파고를 갈라 현대 금강호는 분단의 고통을 헤엄쳐 넘는다. 잠시 눈이 붙었다가 희미한 여명에 화들짝 놀라 깨어난다.
해금강의 日出은 장관이다.
바다를 온통 벌겋게 물들이며, 용두암, 해금강문, 해만물상 그리고 솔난섬을 비롯한 온갖 전설의 풍광들을 모아 놓고 그 너머에서 유라시아 대륙에 싱싱한 아침을 알리려고 불끈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 때맞춰 펄펄 뛰는 생선을 싣고 우리 나라 제일의 어획고를 구가하며 귀항하던 어부들의 합창이 모래사장에 퍼질 때 남녘에서 쉬지 않고 74km를 단숨에 달려 금강산을 휘돌아온 동해안 으뜸의 南江도 덩달아 흥겨워 넘실넘실 춤추는 곳. 신선한 아침을 뜻하는 朝鮮이란 이름을 되새겨 주는 내고향 해금강. 아마도 타골은 鮮을 잘못 알아 morning fresh를 calm으로 썼을까? 꿈속에서도 사무치게 헤매이던 그곳을 나는야 간다.
고향을 떠나올 때의 뱃길도 무척이나 을씨년스러웠는데 되돌아가는 갑판위도 몹시 춥다.
이윽고 시야에 육지가 잡힌다. 그런데 배는 해금강을 지나쳐서야 좌측으로 선회했나 보다. 그 유명한 日出을 말무리반도에 막혀 산너머로 맞아야 하는 이 아쉬움. 그래도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고 가슴에서 응어리가 치민다. 이제 내가 선 곳은 아스라이 먼 옛날 전설 속에 묻어두었던 바로 그 바다, 그 땅이다. 고향 할머니의 하염없이 흐느끼는 눈물이 전염되어 온다. 저 멀리 백발이 성성한 비로봉이 그 아래로 1,000m가 넘는 빼어난 자태의 뭇 장수봉우리들을 100여 개나 거느리고 열병식을 한다. 장전항에 배가 닿는다. 예전의 Harbor는 기억도 또렷한 그대로인데 Port는 망가져 있다.

정녕 仙界인가 他界인가

여기가 이승이 아니라 저승이라 카더라도 우야겠노, 내사 마 안갈란다.
“빼어났다, 신기하다, 기묘하다, 장관이다, 끝내주네, 미치겠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人間의 言語는 모두 부질없다.
無說, 마음비운 깨끗한 喜悅을 참말로 깨우치려거든 금강산의 품속에 안겨서 하염없이 보고 또 보고, 귀담아 자연의 소리를 듣고, 어루만져 보고 산삼과 온갖 약초가 녹아 흐른 물맛 보고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탐승코스는 22景勝을 꼽는데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에 나뉘어 있고 별도로 신금강과 별금강이 들러리를 섰다. 현재는 외금강과 해금강의 일부분이 개방되었다.
구룡폭포가 첫날 행선이다. 장전항을 출발한 버스는 溫井理를 지나 포격으로 폐허가 돼버린 神溪寺 터를 기웃거리다가 하늘을 찌르며 올곧게 솟은 창터 솔밭의 美人松 사이를 달린다. 내려서 솔내음 맡으며 저 늠름한 세존봉과 어여쁜 玉女峰 사이의 신계천 계곡을 걷고 싶다.
육화암과 온갖 폭포 그리고 관음연봉의 비경을 주차간산으로 지나쳐 오선암에 차가 닿자, 앙지대와 금강문을 빠져나가 玉流洞 까지 줄달음 쳤다.

아,,,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 天下 美人을 만나러 왔는데 이어지는 連珠潭, 飛鳳 無鳳폭포를 만나면서 得道한다. 여기는 필경 人間이 사는 곳이 아니렀다. 그렇다면 仙女를 찾아 나서자.

상팔담 仙女 여덟이 경치에 취해서 하늘나라로 되돌아갈 생각은 않고 나무꾼을 다투어 꼬시려고 八潭을 제각기 하나씩 차지해서 발가벗고 목욕하며 競艶을 벌인 곳, 너무 험해서 코스에서 재껴 놓은 곳이지만 뒤에는 따라오는 사람 그림자도 없다. 에라 일육과 상대64 산악회 따라 다니며 다리품 팔은 것 예서 써먹자. 흔들다리를 건너 쇠사다리를 수도 없이 지나 한사코 구룡대에 오른다.
눈앞에 비로봉, 왼쪽에 세존봉 그리고 천화대 너머로 채하봉 뒤에는 옥녀봉과 그 아래로 관음연봉. 엄청나다. 神仙이 된 것 같다.
계곡 아래 절묘하게 펼쳐진 곳에 八仙女가 목욕하는 광경을 숨죽여 훔쳐보는 감동은 나만 간직하련다. 정신이 혼미해 있는데 인기척이 난다. 익찬兄 이다.
仙境에서의 둘만의 오붓한 기쁨, 남쪽 관광객으로서는 우리가 初等이다. 그런데 선녀들은 우리 둘에겐 눈길도 주지 않는다. 젊은 나무꾼이 아니고 늙은 神仙이라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결국, 끝내 나무꾼이 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下山해서 구룡폭포를 향한다.
팔담의 물이 굽이돌아 떨어진 곳에 용트림하는 장쾌한 폭포가 印度에서 해금강을 거쳐 오른 53부처와 9龍 사이의 처절한 싸움의 전설을 마무리하며 떨어지는 곳이 구룡폭포다. 금강산은 온통 龍들의 世界다. 할아버지께서 내 이름자에도 龍을 쓰신 것은 좀 헤펐나?

해금강은 둘째날이다.
마을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바라본다. 손을 흔들어 본다. 소리도 쳐 본다. 헐벗은 들녘에서도 헐어빠진 民家에서도 메아리가 쳐온다. 美帝의 앞잡이 특권층인 우리를 향해서도 몰래 화답한다. 인민학교 아이들은 신명이 났다. 천진한 손들을 마구 흔들어 제낀다. 선생들이 당황한다.
해금강의 백미는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가장 폭이 너른 江인 南江이 풍요로운 입석리인데, 그곳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화진포를 능가하는 큼지막하고 멋있는 백사장이 소나무밭 아래로 2km나 펼쳐져 있다. 모래가 너무 고와 松江이 명사라고 했다. 그곳에 펼쳐진 우리마을 어귀까지는 못 갔어도 그래도 해만물상 앞에서 멀리 할아버지 산소를 향해 제사를 지냈다.
일제에 강점당한 35년 그리고 또 분단 54년 우리민족에게 20세기는 혹독한 시련이었다. 그래도 남쪽은 질곡을 벗어나 세계역사 초유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다가오는 21세기는 마침내 통일된 민족이 웅비할 것을 기약하며 읊어 나가는 祭辭에 둘러선 관광객 뿐만 아니라 TV와 신문기자들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눈시울을 적신다. 몸은 떠나야 하지만 마음은 두고 갈 수밖에 없다.
여러해 전 아이들을 데리고 통일전망대를 찾았을 적의 감동을 써낸 딸 아이의 중학때 쓴 글이 생각난다.

> 아마도 2년 전이었던 것 같다. 그 해 6월 아버지의 고향이 보이는 곳에 갔었다. 아버지, 큰아버지와 함께.
> 아버지의 출생지는 강원도 고성군 입석리. 거기서 큰아버지 가족들과 10여 년을 사셨다고 여러 번 들었었다. 난 그때까지 아버지 고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와 마치 내 고향을 가는 듯했다. 그때 최전방에 배치된 부대 사단장은 아빠 친구 분이셨다. 그 분은 갈 수 없는 곳, 쳐다보기라도 하라고 그러셨는지 우릴 비무장지대로 데려 가셨다. 군용지프를 타고 조금 가니까 큰문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통행증 같이 보이는 빨간기를 지프 앞에 꽂았다. 덜컹거리며 흙먼지를 내는 좁은 비포장 도로는 꽤 길었다. 길 양옆은 모두 빽빽이 나무, 잡초 같은 것이 들어찬 숲이었다. 5분쯤 뒤 도착한 곳은 작은 건물이 몇 개 있는 곳이었다.
> '지뢰조심'이 계단 앞 잔디에 세워진 표지판에 적혀 있었다. '자연보호'가 아닌 '지뢰조심'. 이것도 6.25가 남긴 하나의 잔해가 아닐까?
> 조금 섬뜩한 기분으로 아버지 친구 분을 따라 작은 언덕을 올라갔다. 거기엔 커다란 망원경이 있었고 웅웅거리는 방송소리가 들렸다. 말로만 듣던 '대남 방송'. 우리의 방해전파로 잘 안 들렸지만, 괴상한 톤의 목소리로 하는 김일성 찬양 노래는 내가 북한에 무척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했다.
> 원래 비무장지대는 군대가 없었는데 서로 조금씩 들어와 이젠 서로 보일 정도라고 했다. 난 실제로 북한 공산군 초소와 공산군을 작게 나마 볼 수 있었다.
>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구경거리가 되는 이유는 뭘까? 우리도 저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겠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것 우리 집 앞에 흐르는 강이야!"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까지 열심히 망원경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의 기쁨의,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
> . 큰아버지의 "맞아. 맞아." 하시는 목소리도 젖어 있었다.
> 나한테 보라 하셔서 열심히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아 긴 설명 끝에 찾은 강은 실오라기 같이 작았다. 나보다 눈이 나쁘신 아버지가 찾으신 게 이상했다.
>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 큰아버지의 눈에선 그리움이 눈물 되어 방울방울 쏟아지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그건 날 놀라게 했고 어느새 내 눈시울도 젖어 있음을 알게 했다. 눈물을 닦고 다시 고향을 쳐다보시는 아버지. 그분의 그리움에 젖은 눈동자에서 나는 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아버지 같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이다. 태어난 곳엔 가볼 수 없고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을 찾아간다고 저마다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통일이라는 것. 기다리고 있으면 찾아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운 이들의 눈물을 알텐데. 살붙이(우리 모두 다 살붙이다)의 부름. 끈끈한 잡아당김을 공산주의자들도 느낄 수 있을 텐데. 전적으로 그들 잘못도 아니다. 우리도 많은 길을 아직 트지 않았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선...
> 그곳을 내려오다 말고 난 고모가 저 갈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걸 잊고 있었음을 알았다. 난 금세 뛰어 올라가 언덕 위에 섰다.
> '고모!' .
> 이 침묵의 외침이 어느새 그곳으로 퍼지고 있었다.

학생기고 1

우리들의 또 다른 초상– 바로 자신의 문제 – 김 선 형 (경제학부 98학번)

(…)

20대의 에너지는 불안이 창출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30대에게도 우리만큼의 불안이 있습니까?"
물론 30대, 40대에게도 불안은 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불안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없어진다면 인간은 끝장입니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솟구치게 만들고 싶으면 불안을 잔뜩 껴안아야 합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중간한 행복에 만족한다면 불안은 즉시 사라집니다.
'인생은 어차피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깨닫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만일 불안을 껴안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에너지가 철철 넘쳐흐를 것입니다.
망설이고 망설여서, 마침내 그 망설임에서 빠져나가십시오.
(…)

-나카타니 아키히토(中谷彰宏)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 中

20대에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한 100만 베스트셀러 작가의 충고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생의 젊은 시절을 누리고 있는 한 학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다.

서울대 경제학부에 입학한지 어언 이년… 아직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대학생활 이지만 벌써 대학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쌓이는 것은, 이제서야 대학생활에 대하여 뭘 좀 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입학하고는 하루하루 마냥 들뜬 기분에 보낸 일학년 시절, 당시 많은 새내기들의 심정이란 그저 '해방감' 바로 이 한 마디일 것이다. 공부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일학년… 일단 대학이란 곳에 적을 걸어둔 학생으로서 늘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미쳐보고, 또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정신을 팔면서 그렇게 일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새내기 시절을 마감하곤 한다.

그러나, 그저 막연하게 '대학생활, 잘 보내고 싶다' 는 생각에 전공 수업도 열심히 들어가고 강연회, 발표회, 연주회, 세미나, 집회 등등에도 참여해 보지만 한 번 물들기 시작한 '여유로움'이라는 미덕(?)은 점차 생활의 템포를 늦추고 모든 것에 느슨하게 반응하게 하였다. 학과과정이 만만하거나, 해야 할 공부가 적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느긋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모든 일에 "완벽"
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버린 것이다.

기성세대들처럼 자기가 자신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70-80년대처럼 사회와 민주화에 대한 압박과 열망이 벌써 지나간 레퍼토리가 되어버린 90년대의 대학생에게 제일 우선하는 관심사는 바로 나 자신과 그 주변의 일이지만, 이마저 그 절실함을 잃어버린 채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데 더 신경 쓰게 되는 자신이 되어버린 것이 일학년 시절이었다.

이학년이 되면서,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생각해야 할 것도 많아 졌다. 과 내에서의 위치가 '후배'에서 '선배'로 바뀌었고, 이수해야 할 전공이 녹녹치 않으며, 슬슬 진로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문대 대형 강의동에서 이백명이 넘는 수강생들과 몸을 비벼가며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IS-LM curve와 그 현실 응용을 듣노라면, 가끔씩 답답함을 이기기 어렵다. 경제학… 흥미는 있는데… 공부할수록 해야 할 것은 늘어가고… 과연 내가 이 지식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 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 동안 몸에 배어버린 타성으로는 갑자기 쏟아지는 이런 일들을 헤쳐나갈 엄두가 나질 않고…

요사이는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고시를 준비한다. 얼마 전 학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로 중 일 위를 고시가 차지하였다. IMF탓일까? 90년대 말 대학 이학년이면 고시, 학계, 그리고 회사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제, 그 동안 외면해 왔던 대학생의 "불안"과 맞닥트리게 된 것이다.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일, 바로 나의 일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잘 알면서도 그러하지 못하였던 나의 생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아키히토가 말했던 것처럼, 생활의 열정은 코너로 몰리기 시작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닌가. 비록 좀 늦기는 했지만, 예비 경제학도로서 배로와 씨름하고 블랑샤와 자웅을 겨루어야 한다. 사회에 대한 애정도 더 이상 남 일이라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껏 나의 관심은 모두 經世濟民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아닌가!

학생기고 2

알아간다는 것 …… 박 지 원 (경제학부 99 학번) 경제학부 1학년생으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기 위해 일기장을 펼쳐봤다. 안 그래도 악필인데, 대학교 들어와서 쓴 일기는 나 자신조차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매일 매일 무엇이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글씨에도 '흥분'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어쩌면 술에 취한 상태라 글씨가 더 엉망인지도 모르지만……)

대학생이 되고 시간이 흘렀지만 내 가치관이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말 그대로 선한 것이 좋고 악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내릴 당시, 그것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인 것 같다. 대학교 초년생이라 시간도 많고 해서, 과 차원에서 아니면 사회대 내지는 전 대학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에 여기 저기 다녀봤다. 그것이 축제든, 집회든, 세미나든 어떤 것이든지 어떤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잠시 잊고 있었거나 내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의 방향은 자연히 바뀔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더 알게 된 데서 온 변화일 것이다.

예를 들면, 1학기 중반쯤 지하철 파업이 한창일 때, 경제학부에서 지하철 노조원 몇 분을 섭외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지하철 노조는 노동자고,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들에게 착취당하니까 우리가 보호해야만 한다'는 식의 논리는 이제 진부하다 하더라도(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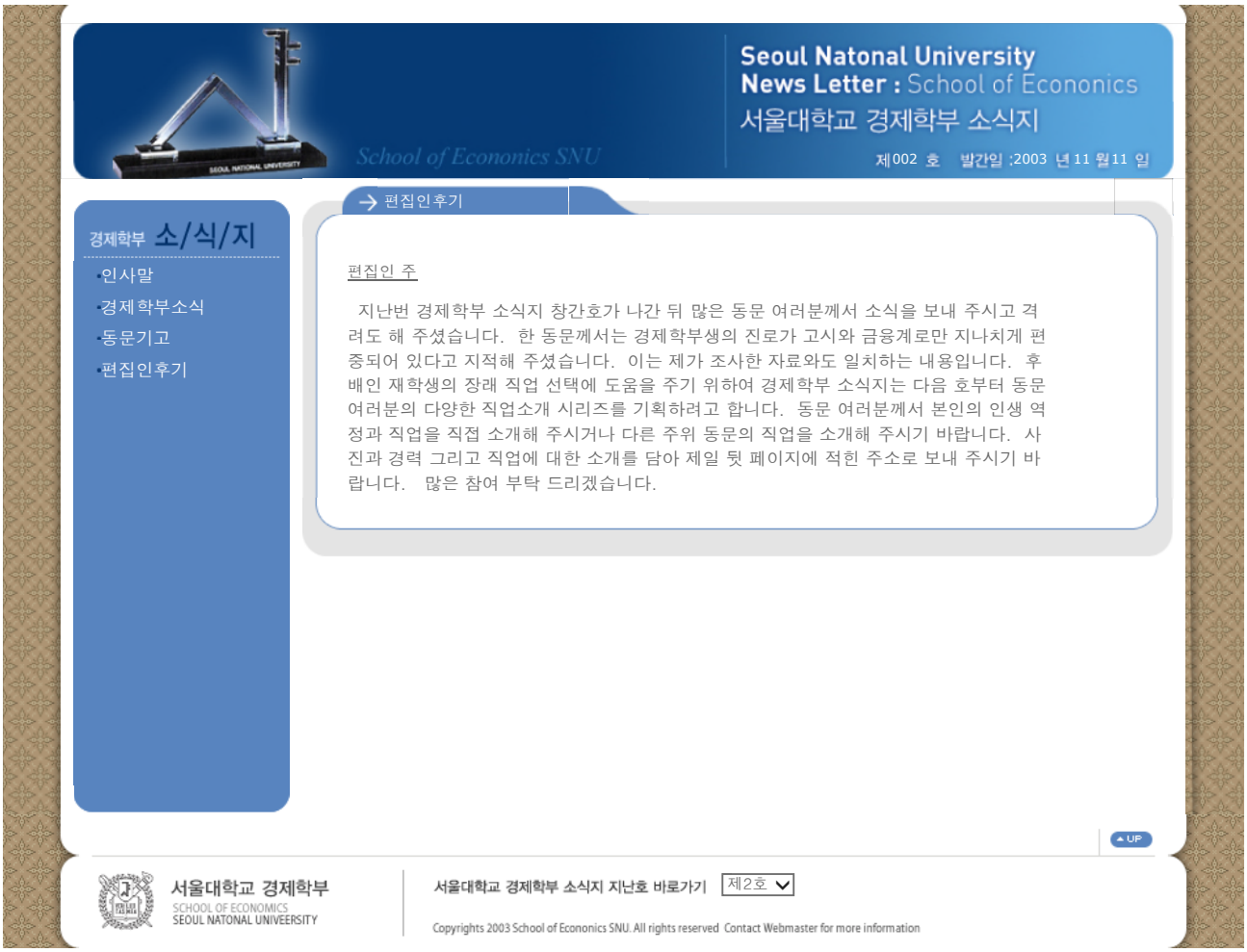
없지만), 적어도 신문 상에는 고용주 입장이 주로 보도되었던 것이 사실이니까, 이번에는 피고용자 측의 입장에 귀기울여 봐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도 명색이 대학생이라면 그래도 아직은 '배운 사람', 지방 '깊숙이' 들어가면 '지식인'이라고 까지 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 쪽 이야기만 듣고 독단해버리는 '무식한' 행동은 삼가야 하지 않을까. 양쪽 모두를 알고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다면 할 수 없지만, 서로 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고상하게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태'에서 서로의 판단이 다르다면 그건 서로의 가치관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일단 서로가 최대한 '알고 난 뒤에' 다시 논의했는데도 서로 의견 차가 있다면 그때야말로 가치관의 문제이고 서로 더 이야기해 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계절 학기를 다운시키고 따라갔던 '농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농촌이 요즘 힘들다는 사실은 누가 모르겠느냐 만은, 실제로 가서 해보고 들어서 아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한국지리책에서 누구나 봤던 '영농의 기계화'가 얼마나 꿈같은 소리인지 모른다면, 대학생으로서 더 나아가 '지식인'으로서 '무식한' 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가와는 별 상관이 없이. 물론 교실 안에서 얻는 앎이 허황되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다만 교실 안에서는 수업을 들었다는 증거로 필기와 책, 학점이 남는 반면에, 교실 밖에서 얻은 지식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 쉽게 간과하기 쉬울 것 같아 생각해 본 바이다.

늦게나마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지만, 알고자 얼마나 노력했는가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 그러면 이번엔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은 쓸모가 없음을 또 안 것인가? 하루하루 빠짐없이 늘어간 주량, 스타승수, 미팅 소개팅 횟수, 당구 다마수 만큼 내가 얻은 지식이 성장했다면, 난 지금쯤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인의 경지까지는 올라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소위 '잡기'를 통해 사소하나마 무엇인가를 알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판단에 도움이 됐다면 만족한다.

실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대학생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일기장의 글씨에서 나타나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내가 경험해야 했던 '흥분'이었던 것 같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2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1 일
경제학부 소/식/지
·인사말
·경제학부소식
·동문기고
·편집인후기
편집인후기
편집인 주
지난번 경제학부 소식지 창간호가 나간 뒤 많은 동문 여러분께서 소식을 보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한 동문께서는 경제학부생의 진로가 고시와 금융계로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제가 조사한 자료와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후배인 재학생의 장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제학부 소식지는 다음 호부터 동문 여러분의 다양한 직업소개 시리즈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본인의 인생 역정과 직업을 직접 소개해 주시거나 다른 주위 동문의 직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경력 그리고 직업에 대한 소개를 담아 제일 뒷 페이지에 적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UP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ONAL UNIVE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지난호 바로가기
제2호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